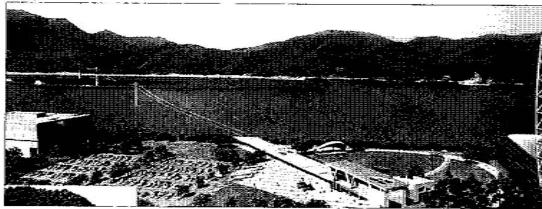


450억 투자 기대 ... 9월까지 업체 선정

보전산지에 민간업체 참여보장 개정안 공포 앞두고
시 사업비조달·설계 진행 3개 레저업체 참여의사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조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 공포를 앞두고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에 대
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보전산지(공
익용)에도 민간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와의 공
동 케이블카 설치를 도모해

은 춘천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총 450억원에 달하는 사
업비 조달과 설계 등이 빠르
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국
내 최대 레저업체인 더명그
룹 등 3개 이상의 전문 업체
가 참여 의사를 전하고 있어
9월까지의 업체 선정을 마친
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추

진하는 이른바 '제3섹터' 방
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부지
를 제공하고 사업지는 개발·
운영을 맡아 수익의 일부를
시에게 주는 방식이다. 시는

사업자 결정에 앞서 진행 중
인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마
치는 대로 해당 부지를 도시
계획시설상 '삭도 시설'로 결
정 고시할 예정이다.

의암호 명소화 사업의 핵심
인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은
올해 초 노선이 확정된 후 지
난달 삼악산 상부 정자장 부
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조건부 가결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코스는 삼천동 송암레포츠
타운 입구 수변 주차장 부지
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
악산 7부 능선까지 이르는 3.
6km 구간이다. 환경영향평가
를 거쳐 내년 10월께 착공해
2019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목표다. 춘천=이두현기자

이번주 시설공사 67억원 발주

국도 7호선 월천교 보수공사 등의
시설공사가 발주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도내
시설공사는 총 13건 6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
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입찰
의뢰한 국도 7호선 월천교 강교도장
보수공사가 11억5,200만원으로 규
모가 가장 크다. 또 △원주시 창조도
시사업단 부른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설치공사(4억4,500만원) 등도
발주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내륙종단 철도망 '대명역' 신설 추진

정부 원주-횡성-홍천-춘천선 추가검토사업 최종 포함
경기 용문-홍천 제외-군 "수도권 관광객 리조트 유치"

【홍천】홍천을 경유하는 내륙
종단선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
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에
최종 포함됐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원주-
횡성-홍천-춘천으로 이어지
는 51.4km의 내륙종단선이 국
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최종 확
정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

축계획안(2016-2025년)에 추
가검토사업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가검토사업은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
요한 사업이다.

이 구간은 당초 경제성이 낮
아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
으로 평가됐으나 황 의원이 국

토교통부 장관과 지속적으
로 협의, 검토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간 내
륙종단선은 단선전철로 총 사
업비는 8,994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내륙종단선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됐으나 실제
철도망 구축이 언제 이뤄질지
는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는 지
적 나오고 있다.

홍천지역에서 건의해 온 경

기도 용문-홍천 구간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천군은 연간 5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면 대명리조
트에 '대명역'을 신설,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
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홍천 경유 철
도망이 구축되면 인구 유입, 기
업 유치, 관광객 증가가 가속화
된다"며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

【 2016.06.20(월) 강원도민일보 】



● 도 건설협

도민화합을 위한 제17회 강원도민 달리기대회'가 오는 25일 열리는 가운데 최동용 춘천시장과 직원들, 조완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과 직원들, 오인철 도건설협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참가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안병용·사호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신임 청장 신동학씨 내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신임 청장으로 흥천 출신의 산업통상자원부 신동학(50·사진) 해외투자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신 과장은 흥천태생으로 서울 환일고와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경제부 공보팀장과 지식경제부 인도네시아 상무관·전력시장과장, 중·러협력과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해외투자과장 등을 역임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 2016.06.20(월) 건설경제 】

요진건설산업,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15일 임직원 및 협력업체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휘경여자중·고등학교 건산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준명 요진건설산업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건설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장 아름다운 주거 문화,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요진건설산업은 기존 주택건설업 중심에서 더욱 확장된 신규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일산 동구 백석동에 공급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Y City)는

성공적인 분양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을 운영하며 쌓은 호텔업 노하우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일산 와이시티 부지 내 5성급 호텔(250실, 28F~B5)사업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미얀마에 시멘트 공장을 세우는 등 해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요진개발, 요진자산관리, 구로호텔과 같은 건설업종 계열사 외에 요진건설여자골프단, 학교법인 휘경학원(여중·고)을 보유하고 있다.



2016 건설의 날 기념식 '성황'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정식 국회 국토위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강호인 국토부 장관, 박해상 우석건설 대표(금탑 산업훈장), 황교안 국무총리,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금탑 산업훈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인 153명에 대한 정부 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관련기사4면 안윤수기자 ays77@

“건설산업 규제개혁·인력양성 등 첨단화 적극 지원”

황총리, 격려사서 강조
최삼규 회장 “ICT기술 구현
새로운 인프라 등 개발하자”

“건설산업은 언제나 국가 위기 극복의
들과구였다.”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를 주
제로 한 2016년 건설의 날 기념식이 지난
17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과 대한건설단
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이날 서울 논
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
을 열어,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
산업 활기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
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개원
한 20대 국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강길부, 박덕흠, 윤관석, 이원욱, 윤영일, 송
석준, 김현아 의원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이날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국왕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들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1970년대
지은 건축, 도로 등이 아직까지도 하지않이
튼튼하다며 한국은 믿을 만한 국가라고 찬

‘2016 건설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종류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산업 훈장	우석건설	대표이사	박해상	금탑
	금강주택	대표이사	김충재	금탑
	금탑건설	대표이사	윤학수	은탑
	현대엔지니어링(주)	부사장	임홍규	은탑
	㈜백산이앤씨	대표이사	김주환	은탑
	방방이엘씨(주)	대표이사	김재준	동탑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상원	동탑
	신남건설(주)	대표이사	성광훈	
	㈜삼봉	대표이사	박종원	
	동해건설(주)	상무	이준	
산업 표창	(유)장원건설	대표이사	신영익	
	남경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영중	
	대음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인식	
	현대건설(주)	부장	이홍구	
대 통령 표 창	한국원토건	대표이사	정영진	
	연합개발(주)	대표이사	이규식	
	㈜우미	대표이사	김영환	
	㈜다우건설	상무부	정기환	
국무 총리 표창	SK건설(주)	실장	김관용	
	베일건설(주)	대표이사	정문인	
	태안건설(주)	대표이사	김길수	
	㈜삼표산업	상무이사	정기환	
	심상표산업	부장	황철오	

사를 보냈다”며 “건설인들이 국가의 위상
을 높였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황 총리는
“건설산업은 언제나 국가 위기 극복의 들
과구였다. 건설산업이 변화를 맞은 이때 정
부도 규제개혁, 인력양성 등으로 첨단화하
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삼규 회장은 기념사에서 “땅과 열정
으로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난 17일 열린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 포상 수상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건설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ICT
신기술 구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
노후인프라 개선, 도심재생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물량을 창출하고,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와 시장개혁으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

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3명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해상 (우
석건설 대표이사)와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가 받았다.
이어 스은산업훈장 윤학수 (금탑건설
대표이사), 임홍규 현대엔지니어링(주) 부
사장, 김주환 (백산이앤씨 대표이사) 스은

산업훈장 김재준 방방이엘씨(주) 대표이
사, 이상원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각
각 수상했다.
건설의 날(6월18일)은 200만명 건설인
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
됐다. 이후 해마다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
로 열리고 있다. 한상준기자 newspl@